

선형대수학 비대면 강의

4주 1차시 수업

조 성희

정 의 4.1.2 V 를 덧셈(+)이 정의되어 있는 집합이라고 하고 F 를 체라고 하자.

임의의 원소 $u, v, w \in V$ 에 대하여 덧셈에 대한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생각하자.

$$A1. u + v = v + u$$

$$A2. (u + v) + w = u + (v + w)$$

A3. 모든 원소 $v \in V$ 에 대하여 $v + 0 = 0 + v = v$ 를 만족하는 원소 $0 \in V$ 이 존재한다.

A4. 각 원소 $v \in V$ 에 대하여 $v + (-v) = (-v) + v = 0$ 을 만족하는 원소 $-v \in V$ 가 존재한다.

체 F 와 집합 V 사이에 스칼라 곱(scalar multiplication)이 정의되어 있고, 즉 임의의 원소 $\lambda \in F, v \in V$ 에 대하여 $\lambda v \in V$ 이고,

임의의 원소 $\lambda, \mu \in F$ 와 $u, v \in V$ 에 대하여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생각하자.

$$SM1. \lambda(u + v) = \lambda u + \lambda v$$

$$SM2. (\lambda + \mu)u = \lambda u + \mu u$$

$$SM3. (\lambda\mu)u = \lambda(\mu u)$$

$$SM4. 1u = u$$

체 F 와 집합 V 가 위에서 언급한 8 가지 조건들을 만족할 때, V 를 F 위의 **벡터공간**(vector space)라고 한다.

이 때, F 의 원소를 **스칼라**(scalar), V 의 원소를 **벡터**(vector)라고 부른다.

V 가 벡터공간이면 정의 4.1.2의 A4에 의하여 벡터 사이의 뺄셈도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.

임의의 원소 $u, v \in V$ 에 대하여

$$u - v = u + (-v)$$

이다.

보 기 4.1.1 $V = \text{Mat}_{m \times n}(\mathbb{R}) = \{ [a_{ij}]_{m \times n} \mid a_{ij} \in \mathbb{R} \}$ 은 실수를 성분으로 가지는 $m \times n$ 크기의 모든 행렬들의 집합이고,

$F = \mathbb{R}$ 이라고 하자. 이 때, $\text{Mat}_{m \times n}(\mathbb{R})$ 이 \mathbb{R} 위의 벡터공간이 되는지 알아보자

$\text{Mat}_{m \times n}(\mathbb{R})$ 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 덧셈과 스칼라 곱을 생각하자

임의의 $A = [a_{ij}]_{m \times n}$, $B = [b_{ij}]_{m \times n} \in \text{Mat}_{m \times n}(\mathbb{R})$ 과 $\lambda \in \mathbb{R}$ 에 대하여,

$$A + B = [a_{ij} + b_{ij}]_{m \times n}$$

이고

$$\lambda A = [\lambda a_{ij}]_{m \times n}$$

이다.

위에서 정의된 덧셈과 스칼라 곱은 정의 4.1.2의 8 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킨다.

그러므로 실수를 성분으로 가지는 같은 크기의 행렬들의 집합 $\text{Mat}_{m \times n}(\mathbb{R})$ 은 \mathbb{R} 위의 벡터공간이다.

따라서 행렬은 벡터이고 이 때의 스칼라는 실수이다.

보 기 4.1.2 실수를 계수로 가지는 모든 다항식(polynomial)들의 집합을 $\mathbb{R}[x]$ 로 나타내자.

즉, $\mathbb{R}[x] = \{ p(x) = a_0 + a_1x + a_2x^2 + \cdots + a_nx^n \mid a_0, a_1, a_2, \dots, a_n \in \mathbb{R} \}$ 이다. 또한 $F = \mathbb{R}$ 이라고 하자

이 때, 집합 $\mathbb{R}[x]$ 가 \mathbb{R} 위의 벡터공간이 되는지 알아보자.

먼저, $\mathbb{R}[x]$ 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 덧셈과 스칼라 곱을 생각하자.

임의의

$$p(x) = a_0 + a_1x + \cdots + a_nx^n, q(x) = b_0 + b_1x + \cdots + b_nx^n + \cdots + b_mx^m \in \mathbb{R}[x] \quad (n \leq m)$$

와 $\lambda \in \mathbb{R}$ 에 대하여

$$p(x) + q(x) = (a_0 + b_0) + (a_1 + b_1)x + (a_n + b_n)x^n + \cdots + b_mx^m,$$

$$\lambda p(x) = \lambda a_0 + \lambda a_1x + \cdots + \lambda a_nx^n$$

이다.

위에서 정의된 덧셈과 스칼라 곱은 정의 4.1.2의 8 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킨다.

그러므로 다항식들의 집합 $\mathbb{R}[x]$ 는 \mathbb{R} 위의 벡터공간이고, 따라서 다항식도 벡터이다.

보 기 4.1.3 모든 항이 실수로 이루어진 무한수열 $a_1, a_2, \dots, a_n, \dots$ 을 $\{a_n\}$ 으로 나타내고 이러한 무한수열을 모두 모아 놓은 집합을 $\text{Seq}(\mathbb{R})$ 로 나타내자. 집합 $\text{Seq}(\mathbb{R})$ 이 \mathbb{R} 위의 벡터공간이 되는지 알아보자.

$\text{Seq}(\mathbb{R})$ 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 덧셈과 스칼라 곱을 생각하자.

임의의 수열 $\{a_n\}, \{b_n\} \in \text{Seq}(\mathbb{R})$ 와 $\lambda \in \mathbb{R}$ 에 대하여

$$\{a_n\} + \{b_n\} = \{a_n + b_n\}$$

이고

$$\lambda\{a_n\} = \{\lambda a_n\}$$

이다.

이와 같이 정의된 덧셈과 스칼라 곱은 정의 4.1.2의 8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므로 모든 무한수열들의 집합 $\text{Seq}(\mathbb{R})$ 은 \mathbb{R} 위의 벡터공간이다. 따라서 무한수열도 벡터이고 이 때의 스칼라는 실수이다

보 기 4.1.4 체 F 와 양의 정수 n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 집합

$$F^n = \{ (a_1, a_2, \dots, a_n) \mid a_1, a_2, \dots, a_n \in F \}$$

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덧셈과 스칼라 곱에 관하여 체 F 위의 벡터공간을 이룬다.

임의의 $(a_1, a_2, \dots, a_n), (b_1, b_2, \dots, b_n) \in F^n$ 과 $\lambda \in F$ 에 대하여

$$(a_1, a_2, \dots, a_n) + (b_1, b_2, \dots, b_n) = (a_1 + b_1, a_2 + b_2, \dots, a_n + b_n)$$

이고

$$\lambda(a_1, a_2, \dots, a_n) = (\lambda a_1, \lambda a_2, \dots, \lambda a_n).$$

이다.

특히, $\mathbb{R}^n = \{ (a_1, a_2, \dots, a_n) \mid a_1, a_2, \dots, a_n \in \mathbb{R} \}$ 는 실수체 \mathbb{R} 위의 벡터공간이다.

이러한 벡터공간 \mathbb{R}^n 을 **Euclidean n-공간(space)**이라고 부른다. $n = 1, 2, 3$ 일 때의 벡터공간 \mathbb{R}^n 의 벡터

를 각각 직선벡터, 평면벡터, 공간벡터라고 부르며, \vec{a}, \vec{b}, \dots 와 같이 화살표를 이용하여 나타내기도 한다.

물론 $\mathbb{C}^n = \{ (a_1, a_2, \dots, a_n) \mid a_1, a_2, \dots, a_n \in \mathbb{C} \}$ 도 복소수체 \mathbb{C} 위의 벡터공간이다.